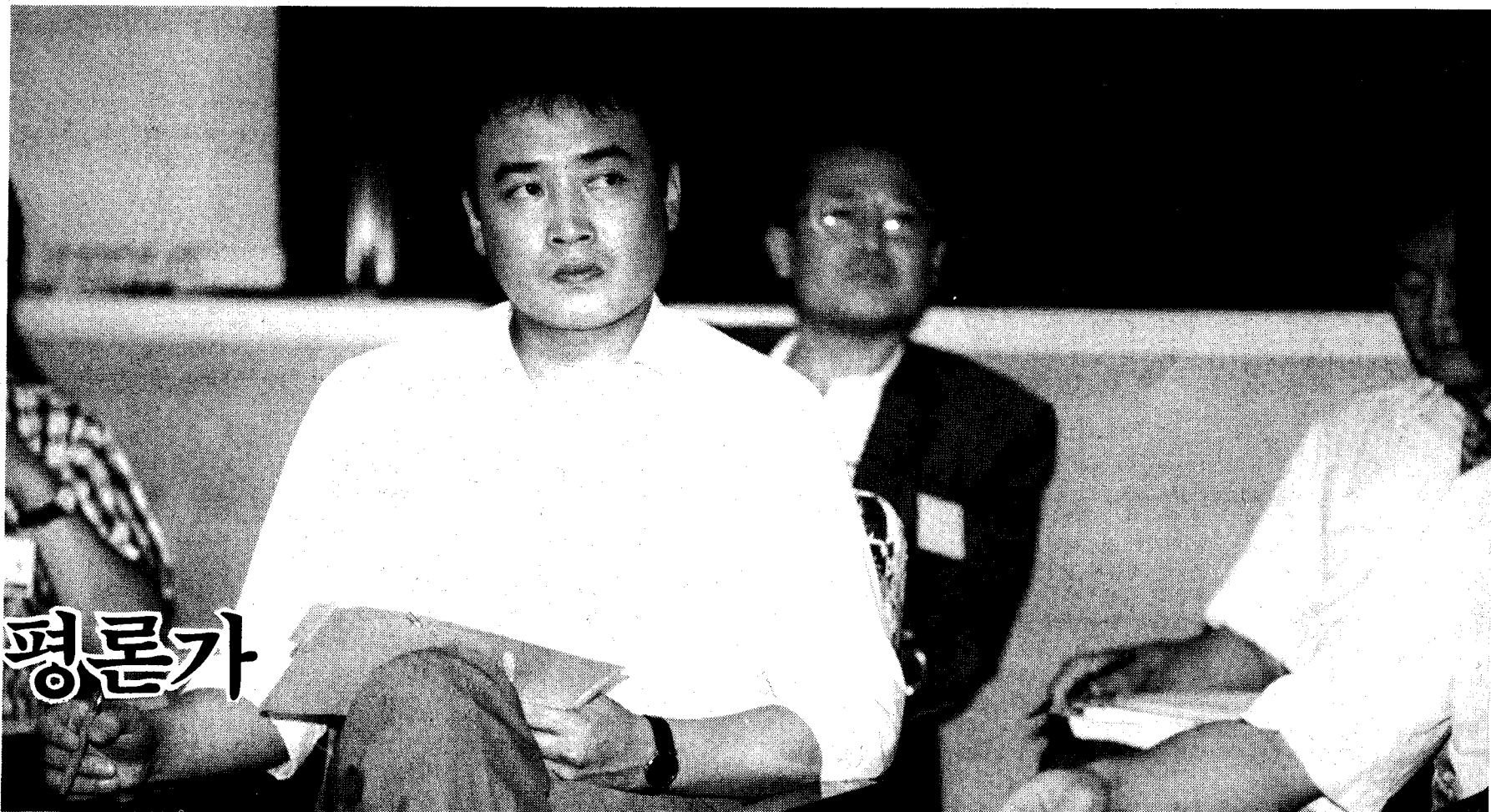


강철주 동문

출판 평론가 <국문과 85년 졸업>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일궈낸 출판 평론가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출판세미나에 발제자로 참가한 강철주동문

출판? 우리들에게 약간의 어색함이 깃들여 있는 단어이다. 사전적 의미를 짚어보면 '저작물을 책으로 꾸며 세상에 내놓음'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들에게 서투른 출판에 대해 손쉽게 다가온 이가 있다. 바로 출판업계에서 1인자라 불리는 강철주동문이다. 그는 출판이란 모든 책을 통해 문화현상을 두루 이해하는 것이라 말한다.

하비콕스의 '바비제'를 가장 감명있게 읽었다는 강철주동문은 어릴 때부터 책읽고, 글쓰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고 한다. 그것을 입증이라도 해주는 듯 그의 집 서재에는 과학, 종교, 인문학 등 여러 종류의 책들이 즐비해 있다. 그것은 마치 일반 서점을 연상케 하기에 충분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침착하고 조용한 성격 탓에 여러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

다 혼자 있기를 좋아했다. 혼자있었다보니 책을 보거나 글을 쓰는 기회가 많아졌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내가 성장하는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된 것 같다. '머그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78년도 처음 대학교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학교 국문과를 택한 강철주동문은 대학시절동안 책과 씨름을 하며 살았다. 그리고 워낙 책읽고, 글쓰기를 좋아해 일반 동아리보다는 대학교보에 들어와 생활했다고.

강철주동문의 애기속에 한곳에 몰두하는 그의 기질을 엿볼수 있었다. 대학졸업 후 지금의 초등학교 교사 아내와 중매결혼을 한 강철주동문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의 아들을 두고 있다.

졸업 당시 KBS구성작가를 조금 하다가 85년 월간 '마당지'의 잡지사에서 기자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출판저널'에서 일을 할 때였다. 87년 처음 창간된 '출판저널'에서 5년간 편집부장할 때 세상사람들은 그를 주목했다. 그리고 출판업계에서 그의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고, 다른 잡지사에서도 많은 원고청탁이 들어왔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주동문. 다같이 밤에 술을 먹고, 친구들은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혼자 새벽에 소주 5병을 먹은 것은 아직도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요즘도 집에 혼자 있거나 원고자 잘 안써질 때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훌쩍 훌쩍 마시면서 추억속에 잠겨곤 한다. 과거에는 새벽에 술을 살 곳이 없었는데, 지금은 편의점이라는 아주 편리한 가게가 있어 너무 좋다고 한다.

음을 지으면서 말한다.

"평범한 진리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해서 직업으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남는 것이라는 생각이 요즘 자주 든다. 특히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보장된 대학시절 때 다양한 책을 봐두는 것은 나중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준다. 다른 사람의 글을 보면 자기의 안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우리나라는 아직 장서문화가 덜 발달되어 있는 것 같다. 자기가 한 번 읽는 책을 대다수 버리곤 하는데 모두 모아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며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조언도 마다하지 않았다.

처음 인터뷰를 할 때부터 편안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준 강철주동문. 그는 40여년동안 항상 책과 씨름을 하며 살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의 진보, 그에게는 후퇴라는 단어는 없는 듯 했다. 오직 전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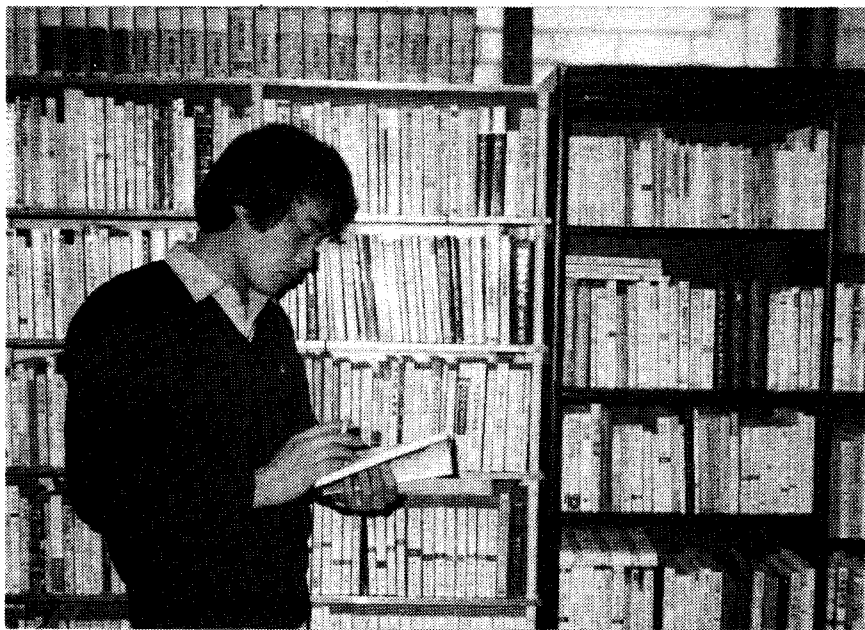
"출판편집이란

책으로 표현된 문화의

현실과 의미를 관찰하고

해석하며 판단하는

일을 의미한다"



▲강철주동문의 서재에는 여러 종류의 책들이 수북히 쌓여있다

87년 처음 창간된

'출판저널'에서 5년간 편집

부장을 할 때 세상사람들은

그를 주목했다

그리고 출판업계에서 그의

능력을 인정 받기 시작했다

"대학생활의 대부분을 대학주보에서 보냈다. 대학주보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다. 정해진 시간에 원고를 써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다."며 그 당시의 일을 생각하는 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적극적이지 못한 성격 탓에 대학4년동안 미팅을 한 번도 못했다는 강철주동문. 대학시절동안 많은 여학생들이 좋아했지만 직접 말을 걸어본적은 없다고 한다. 여자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그 이후 지금까지 그는 선택의 출판기획 사무실과 집에서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으며 라디오와 케이블 TV에도 출연하고 있다. 라디오 'FM포넛쇼'와 'KBS 새벽을 연다' 그리고 케이블 TV 불교방송 '날마다 좋은날'에서 출판평론가의 초대손님으로 나와 책에 관한 얘기들과 경향 등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또한 한겨레에서 '강철주의 책읽기'라는 고정 칼럼을 맡고 있다.

강철주동문을 얘기하자면 '술'을 빼놓을 수가 없다. 대학시절부터 술을 너무 좋아해 요즘도 시간만 나면 술을 마신다고 한다. 맥주는 배불러서 못먹고, 대신 소주는 편안하고 화끈해서 좋다고 한다. 대학시절 제주도로 M.T를 갔을 때가 그의 술전성기(?)라고 말하는 강철

평범한 진리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해서 직업으로

삼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대학시절때

다양한 책을 읽어줘야 한다

론쪽으로 계속 일할 생각이라고 대답하면서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책의 역사를 주제로 한 책을 낼 예정인 강철주동문은 지금 자료수집단계에 있다. 과거 어떤 책들이 나왔는지는 자세히 알려주는 책들은 나왔지만 그시대 사람들이 주로 읽었던 책들, 무슨 책들을 읽었는지 밝혀주는 내용 책들이 없어 이번 기회에 글을 한 번 써볼 생각이라고, 올해 책을 낼려고 마음먹었지만 게으른 그의 습성 때문에 아마 올해는 포기해야겠다고 너털한 웃

강철주 동문 주요 경력

- 1985년 경희대학교 국문과 졸업
- 1985년 월간 '마당' 지 기자
- 1987년~94년 출판저널 편집차장 및 부장
- 한겨레신문 '강철주의 책읽기', 출판저널 '독서화일' 칼럼리스트
- KBS '새벽을 연다', 케이블TV '날마다 좋은날'에서 출판 평론가로 출연

영통전화국 이전에 따른 전화, 팩스번호 변경안내

본 대학교 인접지역 개발로 전화수요가 급증하여 영통전화국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 신갈전화국에 수용된 교내 국번 및 직통 전화번호(팩스 포함)가 영통전화국으로 이전되어 부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시기 : 1997년 11월 12일 00시

나. 변경후 번호

- 교내(DID) : 외부에서 학교로 전화할때 국번만 변경 : 국번 280에서 201로
- 직 통 전 화 : 외부에서 학교로 전화할때 국번, 고유번호 일부변경 : 국번 281에서 204로
- 팩 스 : 외부에서 학교로 팩스 사용할 때 국번, 고유번호 모두 변경

다. 변경전화번호는 전화국에서 2개월간 자동안내됨

부 서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전 화	팩 스	전 화	팩 스	
학원장	281-8000		204-8000		
총장	281-8001		204-8001		
부총장	281-8002	281-6374	204-8002	204-8102	
기획조정실장	281-8003	281-6277	204-8003	204-8103	
교무처장	281-8005	281-6371	204-8004	204-8104	
연구처장	281-8004		204-8005	204-8106	신규1회선추가함
학생처장	281-8006		204-8006	204-8107	신규1회선추가함
사무처장	281-8007	281-6177	204-8007	204-8109	
재무처장	281-6375		204-8008		
도서관장	281-8008		204-8009	204-8111	신규1회선추가함
정보처리센터소장			204-8010		신규1회선추가함
아태지역연구원	285-6344		204-8011	204-8120	신규1회선추가함
학군단장	281-8009		204-8012		
입학관리과		281-6046	204-8013	204-8105	신규1회선추가함
학생처(취업정보실)		281-6377	204-8108		

부 서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전 화	팩 스	전 화	팩 스	
사무처(관리과)		281-6379		204-8110	
외대		281-4962		204-8112	
사회대		281-4963		204-8113	
자연대		281-4964		204-8114	
공대		281-4965		204-8115	
산업대		281-4966		204-8116	
체대		281-4967		204-8117	
일반대학원		284-7181		204-8118	
국제대학원		285-6343		204-8119	
신문방송국		281-6378		204-8121	
예지원		281-6373		204-8122	
사회교육원				204-8123	신규1회선추가함
국제교육원		281-6003		204-8124	
예비군연대본부		285-8132		204-8125	
노동조합		281-6376		204-8126	

수 원 캠퍼 스 사 무 처